

石築解體時 出土된 遺物은 如下하다.

(1) 李朝白磁破片는 多數..後期白磁로 推定되는 蓋의 破片 등이 二,三處에서 發見되었다.

(2) 粉靑砂器破片..麗末鮮初 期間 中 製作되었다는 여기서 出土된 것들은 大概 鮮初의 作品이라고 推定된다.

(3) 土器破片..胎質이 堅緻한 土器破片이 發見되었다. 대략 攝氏一,二〇〇度 程度에서 燒成되었으리라 推定되는데 胎色은 淡褐色이다. 高麗時代의 土器로 보여진다.

(4) 白磁青花器破片 一片..器形은 鉢이라고 推定된다. 青花材는 古靑으로 보인다. 胎質은 硅石質이 成分인 듯하다.

(5) 莫斯瓦破片..夫·女瓦의 文樣片이 出土되었다. 全貌를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文樣의 一部分만을 보이고 있다. 此破片群中에서 復元時 使用될 文樣의 標本이 決定되기로 하였다.

(6) 皮製주머니 一點..杏葉形의 皮製주머니 一點이 出土되었다. 裏表는 脫落하고 前片만이 남아 있다. 담배삼지가 아니었을까 生覺된다.

(7) 담배대 竹竿 一點..金屬附屬品이 去頭截尾된 竹製대만이 出土되었는데 대의 上下孔의 狀態로 미루어 담배대일것이 分明하다.

(8) 부시 一點..鑄造한 素文의 簡古한 부시 一點이 出土하였다.

(9) 網巾破損品 一點..原形을 찾을 수 없이 破損된 網巾 一點이 出土되었는데 竹製細針이 數片 달려 있다.

(10) 빗..상투틀고 網巾쓰고 귀머리 올리는 等에 使用되었으리라 생각되는 小形 빗(살자)이 完全한 形態로 一點發見되었고 半破한 銀래빗이 나왔다.

(11) 其他品..소발톱, 骨片, 砲彈破片, 皮印목 等의 出土가 있었다.

年代推定과 出土作況과 位置는 後에 報告書에 詳記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그 種類만을 列記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大英博物館의 李朝佛幀

崔 淳 雨

倫敦 大英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는 李朝時代의 天王像 두幅을 紹介해

두고자 한다.

두폭 모두 高가 九

尺 幅이 六尺五寸이

나 되는 絹本濃彩의

大幅幀畫로서 하나

는 南方護世增長天

王像 하나는 北方護

世多聞天王像이다.

南方護世增長天王

像에는 畫面下端部

線廊內에

嘉……「奉安于……」寺緣化秩「證師印慧」山中大德秩「度慶」旨觀「

持殿斗性」彩根」誦呪 奉允(外四人)」畫師持消(外九人)」時僧統 有弘」萬

伯(外三人)」이 外에도

都監、別座、化主、記事、鐘頭、供養等等 多數人의 名單이 列記되어

있다.

北方護世多聞天王像에도 亦是 畫面下端部線廊內에는

本寺……「三月……寺」本寺……「沈彥」戎永」覺性」彩彥(外四十四人

名單)

이라는 銘記가 있어서 注意를 끌고 있는데 以上 두폭의 銘記에 點線으

로 表示한 缺字部分들은 故意로 지워서 字劃이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

었으므로 正確한 缺字數조차 確認하기 어려우나 다만 故意로 지워버린

이 缺字部分 등이 各其 그 所屬되었던 寺名과 年記의 部分이었음은 缺字

의 前後文字 또는 다음의 事實로서 능히 짐작이 된다.

즉 前者 南方護世增長天王像의 銘記初頭に「嘉」字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이것은 明年號 嘉靖 또는 清年號 嘉慶의 첫글자로 생각되어지며 北方護

世多聞天王像의 銘記第二行「三月……寺」의 缺字部分을 細密히 檢討해

보면 어림푸시 남아 있는 字劃으로 보아 字數는 두 자이고 이 두 자가 모

두 나무木변인 것으로 認定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다음에 列舉하는 後世의





畫面落書文字 등으로 이루어 보아 아마 도慶北漆谷郡에 있는 松林寺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즉 畫面에 남아 있는 落書들을 대장추려 보면 南方增長天王像에
칠국 소은이
大邱 東下面臺封

李炳俊 丙申四月十一日過次大邱河東月川里居 楊鎬輝
河陽 瓦村面陶溪居 孫晉和 甲辰八月二十一日 過次
北方護世多聞天王에
大邱居 崔兵刑大監乙未七月初八日下人金春吉過次
大邱南門內居 徐明國

등이 보이고 있어서 以上 落書에 나타난 巡禮者들의 住所가 거의 大邱地區가 大部分이었고 特히 「칠국 소은이」란 문구로 보아 地理的으로 前記한 松林寺說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두쪽의 幀畫는 李朝作品으로서는 비교적 活潑한 筆力을 보이고 있으며 또 天王像으로서는 그 크기로나 凡俗하지 않은 솜씨로 보나 이제까지 遺存되어 온 李朝時代의 此種天王像中에서는 佳作에 屬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것이 松林寺에서 흘러나온 遺物임이 틀림 없다면 오랜 廢寺에서 壬亂後에 復興된 것으로 알려진 松林寺의 盛衰로 보아서 銘記中의 「嘉는 嘉慶일 것으로서 따라서 一七九六—一八二〇 사이의 遺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그림이 大英博物館에 收藏된 것은 一九二〇年이었으나 所藏由來는 밝히지 못했으며 大英博物館當局이 보고 있는 十六世紀中葉說은 다시檢討되어야만 될상 신다.

「新羅 文武王陵 斷碑」追記

洪 思 俊

지난 「美術資料」第三輯에 筆者가 文武王陵 斷碑가 發見된 經緯와 海東金石苑의 碑文을 對照한 것 등을 밝혀 보았다. 그後 慶州博物館所藏의 大坂氏發見의 文武王陵碑片과 靑丘學叢第三〇號 藤田氏가 海東金石苑을 본 記錄等을 追記하려 했으나 印刷上 不得已한 事情에서 補充을 보지 못하였던 바 今次 다시 四天王寺址前方(南)에 東西로(兩龜背中心相距約三三m) 二個 龜跌中 어느 것이 文武王陵碑에 該當될가 調査한 바 西側龜跌碑座임을 알게 되어 兼해서 아래에 그 關係를 알려 두자 한다.

(1) 慶州博物館所藏品에 文武王陵碑片(二字)을 大坂金太郎氏가 在慶時 四天王寺址에서 發見(拾得)은 단지 六·一·一로 된 것이 있는 ①데 同碑文을 보면 石質 石色(淡朱) 등이 去年에 發見된 斷碑와 同一한 것을 알겠다. 이 碑片의 形態는 不等邊三角形(厚 一cm)인데 一練磨面에는 亦是 井間內(縱橫 三cm 內外로 斷碑面 井間과 同)에 두字가 左右兩行에는 基字로 解讀할 수 있는 「空」字이고 左行에는 分明히 「書」字가 있다. 이 碑片을 再發見된 斷碑에 接續하여 본즉 同碑前面 第二行 第三行兩行末의 것임을 確認할 수 있다. 즉 圖面二로써 兩處破損面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다시 二字의 補充이 있음을 多幸히 여기는 同時에 文武王陵 斷碑가 本是 四天王寺에 建立되었던 것도 알려준다.



(2) 七月十八·九兩日に 걸쳐서 排盤里所在 四天王寺址前方에 있는 東西兩龜跌를 調査한 바 아래와 같다.
東龜跌碑座穴(圖面一)
長九〇cm 幅一九—二〇cm